





### 서가풍경

## 해조음과 묵향이 빚어내는 지순의 공간

자연으로 돌아간 인제대 김열규 교수의 서가

어느 시인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노래했다. 부산 인제대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열규 교수(67)가 바로 그 시의 주인공 격에 해당한다.

잔잔하게 일렁이는 삼천포 바다만큼 푸근하게 대하는 김교수의 안내로 서가에 들어서는 순간 고서의 향취가 코끝을 스쳤다. 해조음과 묵향이 빚어내는 지순(至純)의 공간에서 잠시 취한 듯 서 있는 동안 서가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초간본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김억의 《오뇌의 무도》, 김동인의 《감자》, 현진건의 《조선의 얼굴》, 이태준의 《문장강화》 등 무려 50여 권의 진귀한 보물이 세월의 빛을 머금은 채 자리하고 있었다.

대학에 입학한 해에 6·25 전쟁이 터지자 그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파지에 적힌 영문으로 공부할 정도로 어려웠던 만큼 책에 대한 애착은 클 수밖에 없었다. 피난 시절 부산 보수동 헌책방 거리를 휩쓸고 다녔던 그는 수복 이후 서울 청계천변을 들쭉시고 다녔다. 비록 곤궁한 처지였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시절에 모았던 초간본이 지금 서가를 빛내고 있는 것이다.

요즘 그는 환경문학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문학의 무대는 자연인데,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 자연을 억압해왔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다.

“대지는 나의 도서관, 삼은 나의 독서용 안경”이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연을 정말로 사랑할 넉넉한 마음으로 귀향한 김교수의 학문적 정열은 서가의 초간본처럼 언제나 빛을 발할 것이다.

— 오원진 기자

